

‘인생은 짧고 약속은 못 지키고…’ 그러니 걸을 수밖에

작가 에세이

탁인석
칼럼니스트

나의 세 번째 수필집을 내면서 솔로몬 왕의 최후의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왕은 3000년 전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고 지혜의 아이콘으로 각인된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도 최후에는 구약성경 코헬렛 전도서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돼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익히 알려진 솔로몬왕은 1000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40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물처럼 땅처럼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책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인생을 잘 향유하기도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왜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했을까. 그가 남긴 큰 깨달음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으면 모두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크게 눈치 챈 것입니다. 일평생 쌓은 부와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숙명을 늘 기억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자기 인생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생명이 있는 동안은 ‘기뻐하고 즐기자’는 지혜의 말씀을 최후로 남긴 것입니다.

나 또한 솔로몬왕의 ‘헛되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을까. 산야가 만추입니다. 알베르 카뮈는 “앞사귀가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라는 시구를 남겼습니다. ‘페스트’, ‘이방인’ 등으로 우리의 귀에 익숙

카뮈는 44세 때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작가가 됐고 47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운을 겪습니다. 부조리 인생을 한평생 탐구한 작가의 부조리한 인생이 깨달아지는 강한 역설로 다가옵니다. 허무감이 밀물지고 부조리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지는 이 나이에 살아있는 기쁨은 무엇으로 담보할까. 글쓰기입니다.

문학성을 지킨 글쓰기는 장엄하다고 해야 할까요. 글쓰기는 한마디로 인간탐구를 하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정

“캄캄한 사막의 밤에 낙타들이 저마다 ‘인식’의 짐을 싣고 비록 헛되기는 하더라도 죽기 전에 도달해야 할 오아시스를 향해 한발 한발 가고 있다는 게 인생이 아닐까.”

작 장르 선택에 있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호머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섭렵하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아네스’를 읽었다 하여 나의 글쓰기는 그에 미칠 수도 없습니다. 내 방식의 글쓰기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 문학이 모든 예술장르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으로 세상을 밝히고 예언 한다고 할 때 나 자신의 역할에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의 문화인식을 다듬으려 했었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했습니다. 내 스스로 감히 ‘문화마이터스’

라는 지칭을 했습니다. ‘마이터스’는 손이 닿으면 황금으로 변하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프리지아 왕의 이름인데 문화가 대세이고 대박이 되는 시대에 문화든 문학이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나의 열망을 독자들에게 어필해보려는 몸부림이겠지요. 문화인식과 전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책장 넘기듯 일회성 독서로 지나치기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전방위적으로 그 뿌리가 튼실해야 겠지요. 거기에 역사의식 또한 필요 덕목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겠지요. 역사를 모르는 작가가 감각적으로만 독자에게 접근한다면 어찌 될까요. 언어의 힘은 국민 창의성의 바탕을 이룹니다. 국민 창의성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한글이 발전하고 세계화될 때 역사의식은 한결 덩실해질 것입니다. 한글을 잘 부리는 작가들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역사를 묻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 하나하나가 사막의 낙타들이 별빛 찾아가는 나의 미션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캄캄한 사막의 밤에 낙타들이 저마다 ‘인식’의 짐을 싣고 비록 헛되기는 하더라도 죽기 전에 도달해야 할 오아시스를 향해 한발 한발 가고 있다는 게 인생이 아닐까. 오아시스 찾아가는 낙타의 이정표는 오직 별빛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래도 자식을 남기고 나무를 남기고 책을 남겨야 ‘사람다움’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정리가 되었 습니다.

그래! 인생은 짧고 약속은 못 지키고 그러니 별빛 찾는 낙타처럼 무한정 걸을 수 밖에... 이번 수필집 제목을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로 했습니다.



기고 | 염권철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일하면서 용돈벌이 이상의 보람 느꼈다”

“효령타운 구내식당 조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전 9시 셔틀버스로 출근해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회원들이 점심 드시러와요.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7년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정인순, 75세)

“주변 환경 청소 뿐만 아니라 친환경 효소를 만들고 있어요. 내 손으로 만든 효소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고정숙, 67세)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르는 회원들이 사용법을 알고 고마워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김봉덕, 65세)

지난 14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일하는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타운이 하고 있는 10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다. 타운 구내식당 지원, 안심순찰대, 청춘예술단, 에코시니어, 도예 체험, 스마트폰 길라잡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요즘을 살맛이 난다”며 입을 모았다.

안심순찰대 김만식 반장 (85세)은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면서 “손주에게 용돈 주는 즐거움도 있고 일하다 보니 우울한 마음도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년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보면, 노인일자리는 ‘용돈 벌이’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일자리를 찾고서 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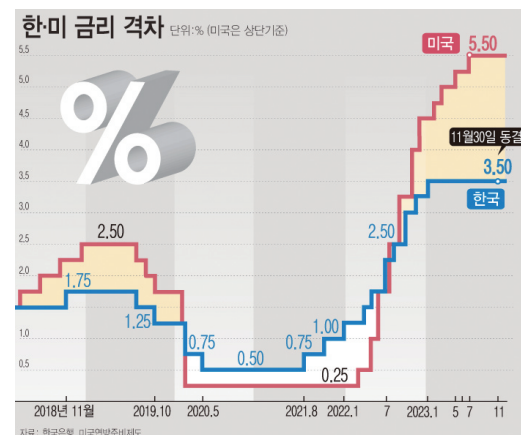
물론 질병, 빈곤, 소외, 무위 같은 노인문제에 줄어드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72만 개 일자리를 내년 87만 개로 늘린다. 올해 대비 15만 개 늘어난 수치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하루 3시간 이내, 주 3일 일하며 월평균 27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다. 효령타운 고이순 일자리사업팀장은 “매일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도 늘리고, 일자리 수도 확대했으면 한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또 “지식·경륜·의지·건강 등 네 요소를 갖춘 고령자가 많다면 이런 ‘젊은 노인’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효령타운 정경남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노인일자리로 소득이 생기고, 사회 활동도 늘어나고, 건강이 좋아지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소외 받지 않고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울러 “인사 잘하는 일자리, 안전한 일자리, 화합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효령타운은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하루 평균 1천 여명이 이용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평생 교육, 노인 돌봄, 자원 봉사 등등, 내세울 게 너무 많다. 올 9월 노인의 날에는 그동안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창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석 (키보드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충창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드림플러스파레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 (내부 주차 안내판 참조)

롯데시네마 충창로관

1관	서울의 봄 / 더 마블스
2관	싱글 인 서울
3관	싱글 인 서울 / 더 마블스
4관	서울의 봄 스노우 폭스: 설매개가 될 거야!
5관	서울의 봄
6관	서울의 봄
7관	프레디의 피자가게
8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0일
9관	괴물

광주광역시 동구 충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북교당한약방

40년 오직 한 길!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